

-머리말-

지역에 뿌리를 둔 학회활동의 중요성

-‘배움’, ‘육성’, ‘발신’의 측면에서의 지역블록활동의 가능성-

일반사회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부회장 호쇼우 토모코(保正友子) (일본복지대학)

지난 1년 동안, 저는 일본사회복지학회 부회장으로서 지역블록담당자위원회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역블록활동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회 및 협회 중에서도 지역블록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7개의 지역블록(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주부(中部), 간사이(関西), 주코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블록의 담당이사도 선출되고 있습니다(<https://www.jssw.jp/district/>). 지역블록활동은 단순히 대규모의 전국 단위의 학회 활동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가 각국 및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국제 사회복지 정의(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를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각 지역블록에서의 활동은 국제 사회복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블록활동의 가능성을 배움, 육성, 그리고 발신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움의 측면입니다. ‘학회’란 ‘지식의 공동체’이며, ‘배움’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그 본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에서도, 연구회, 학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블록은 번갈아 가며 일본사회복지학회 포럼을 개최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2023년 5월 28일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2026년 이후부터는 지역블록 순회 방식을 통해 추계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학회 회원들의 가까운 곳에 배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신의 논의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연구발표의 기회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의 연구발표에 대해 장벽을 느끼는 분들에게 지역블록은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고유의 과제에 대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지역/민족 고유의 지식’을 창출하고 발신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성’의 측면입니다. 지역블록에서는 독자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맹아적 단계의 연구발표 세션 개설,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려상 제도 신설, 연구발표 후 충분한 토의 시간의 확보,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를 위한 스터디 및 정보교환 모임의 마련 등,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연구자의 양성에는 ‘도제 제도’와 같이 일자상전(一子相伝, 역주: 학문이나 기예 따위의 깊은

뜻을 자녀 중 한 자식에게만 전하고, 다른 자식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의 요소와, '학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지도를 받는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해당한다면, 대학원생 간의 관계 혹은 신진 연구자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블록에서 경력이 다른 타 대학의 연구자들 간의 관계는 '대각선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대각선'의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연구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돕고, 다양한 연령 및 분야의 사람들과 넓은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케 하며, 때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대각선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지역블록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신'의 측면입니다. 모든 지역블록들이 뉴스 혹은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매일의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논문이 리포지토리로 관리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지역블록이 발행한 학회지를 읽을 수 있으므로, 학회의 존재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 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움직임이나 지역과제에 대해 학회로서 의견표명 및 제언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액션의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회가 발신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를 배우고 연구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나 혹은 일본 전체에 걸친 학구적인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본 학회의 지역블록활동은 '배움', '육성', '발신'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사회복지학회의 다른 위원회(연구지원위원회, 연구위원회, 홍보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역블록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학회 활동의 활성화가 지역블록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블록의 활성화가 전국 단위 학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1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실행위원장 와타나베 유이치(渡辺裕一) (무사시노대학(武蔵野大学))

무사시노대학 무사시노 캠퍼스에서 10월 14일(토)-15일(일) 양일간,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1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많은 제한 상황 가운데, 일본사회복지학회의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학술대회 개최교의 집행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열린 70회 추계학술대회는 관서복지과학대학(関西福祉科学大学)의 쓰다 코우이치(津田耕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면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일부 프로그램은 줌(zoom)을 통한 라이브 중계 및 온디맨드 중계, 온라인 포스터 발표를 병행’하는 형태로 대회를 운영하였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직접 참가하여, 수년 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동료들과 재회할 수 있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만 뵈어온 분들과 처음 대면으로 만나 뵈면서, 생각보다 키가 크다고 느낀 분도 계셨고, 또 직접 뵈는 것이 처음이라니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71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 대책에 힘쓰면서, ‘전면 대면’ 형식의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형식의 심포지엄’, ‘대면 구두 발표’, ‘대면 포스터 발표’, ‘대면 정보교환회’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대면 포스터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학회에서 발표하는 대학원생이 긴장한 모습으로 베테랑 교수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거나, 포스터 앞에서 공동연구자와 수다를 떠는 모습, 자연스럽게 토론을 시작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광경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구두발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슬라이드 투영(사전등록 필요) 및 페이퍼리스(자료배포 없음) 등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운영위원 및 스태프 일동은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제71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신청 방법

<https://www.jssw.jp/conf/71/entry.html>



제71회 대회의 twitter 계정(@jssw71_musw)을 개설하였습니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제71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는 ‘세계의 행복을 형상화하는 사회복지학의 도전’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지금 전쟁과 분쟁, 재난 등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지구상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left behind)’ 지속 가능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된 국가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도입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설정된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형상화하고 실현함에 있어 사회복지학의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회 첫 날에는 개최교의 기획 심포지엄 ‘SDGs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의 검증과 사회복지학의 도전’에서는, ‘SDGs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인권 문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도쿄대학의 사이토 코헤이(齋藤幸平) 준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을 것이며, 학회 내외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첫째 날(14일)은 연구지원위원회의 주관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바람직한 형태’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진행합니다. 또, 유학생 및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샵에서는 ‘사회복지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의 다문화 공생(2)-한국 및 중국에서의 유학생, 소수민족, 문화적 소수자 등 다양한 학생의 수용 및 대응의 현황과 과제-(가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15일)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가제)’, 마지막으로 학회 기획 세션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논의합니다. 위와 같이 많은 분들의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특정 과제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70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향했던 ‘관계’의 재구축이라는 과제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논의해 갈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형상화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사회복지학의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관계자인 여러분들이 무사시노대학 무사시노 캠퍼스에 모여 활발히 토론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회 CS-NET살롱 개최보고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마스다 요스케(増田洋介)
(건강과학대학(健康科学大学) / 릿즈메이칸대학대학원(立命館大学大学院))

2023년 3월 3일(토) 14시~16시, 제2회 CS-NET살롱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논문 집필~투고부터 논문 게재까지의 고민과 전략~'을 주제로, 제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의견을 교환하고, 제2부에서는 본 학회의 기관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인 아쿠츠 요이치 교수(坏洋一)(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66명으로, 아직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이 없는 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투고 심사에 합격 혹은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분까지 다양한 경력의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투고 심사에 불합격하여 의기소침해 있던 중, 이번 주제의 살롱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분발해 보고자 참가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1부의 의견 교환에서는, 논문의 작성 방법 및 흥미 유도 방법에 있어서의 어려움,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 평가자마다 다른 평가기준에 대한 당혹스러움,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면서도 투고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고민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사문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연구가 근본부터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연구자의 길을 계속 걸어도 되는 것인지를 고민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분도 있었습니다. 한편,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부터, 연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 연구내용의 전달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그룹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또 다양한 사고방식에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갖고, 몇 개의 그룹에서 발표한 후, 제2부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아쿠치 선생님께서 기관지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과 전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유익했다고 느낀 부분은 2018년에 실시된 편집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자를 의식하는 것, 연구의 기법을 따르는 것, 자신의 논문에 가장 적합한 투고처를 선택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에게 바통을 넘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연구의 학문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엄격한 심사 의견을 받더라도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더불어 심사자의 개인적 기준을 '의식하는 척'하는 것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등의 유머 넘치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심사 의견에서 나온 지적 중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에 대해, "단호히 주장해도 좋다"고 단언하신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투고 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연구자끼리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어, 인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심사를 거대한 벽처럼 느끼고, 나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1차 살롱보다 참가자가 2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온라인 회의의 급속한 보급이라는 부산물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가한 그룹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縄) 출신의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여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이벤트 개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느낌도 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면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참가자들은 분명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멀리하곤 했습니다. CS-NET 살롱은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도 참여하기 쉬운 편안한 곳입니다. 신진 연구자 여러분, 부담 없이 참여해 보세요. 분명 공감과 치유, 활력과 든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翻訳

金 湊垣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姜 守香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修士課程)

번역

김호원 (히토즈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강수향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석사과정)